

묻지마 폭로·흑색선전... 진흙탕 선거전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유언비어 난무 갈수록 혼탁 인물·정책경쟁 실종...막말·흠집내기에 고소·고발 극성

6·13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가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인물·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고소·고발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투 바람'을 타고 선거운동마저 '묻지마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5면〉

4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무소속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미투 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는 이날 "악의적인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한 주간지가 이날 1면 머릿기사에 유 후보가 지난해 장성군수 재직 당시 한 주민자치위원 모임에 참석한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당시 모임은 장성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점심식사 자리였다"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데서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 내용은 100% 허위 날조된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주간지는 유 군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성추행 장면 사진까지 지면에 실음으로써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유관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무소속 하승환 보성군수 후보도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한 '술취한 여성과 2시간동안 뒹눴다'라는 자극적인 '미투 기사'로 당

혹스러워하고 있다. 하 후보 측은 "유력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기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 후보 측은 "기사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없이 추상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보도 경위와 배후세력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전정철 담양군수 후보도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언론 기사를 맞고소했다. 정 후보는 "2013년 10월 수북면사무소 작은음악회 행사 중 사건으로,

수많은 주민이 보는 공개 장소에서 성추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해당 기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묻지마 폭로전'에 매몰되고, 정당은 '선거 프레임'에 몰두하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흔들리는 전남 서부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한 바람몰이 나섰고, 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지역발전은 꺾일 수 있다며 조직 총동원과 비민주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인물·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막말·흠집내기 등 선거운동이 혼탁으로 흐르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재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204건 적발, 조치했다. 고발 31건, 이첩 4건, 경고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천 관련 매수 행위(3건)와 공무원 선거 개입(1건) 등 중대 선거범죄 4건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진(19건), 전남도(16건), 장성(13건), 고흥(11건), 영암(10건) 순이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4년전 제6회 지방선거때와 비교하면 전체 적발·조치 건수는 40%가량 줄었다"며 "하지만 지난 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간 접전 지역의 경우 과열돼 고소·고발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4일 오전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들이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산단 개발 현황,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현대차·광주시 미래형 자동차 협상 속도 낸다

1000cc 미만 경차 생산할 듯 전기차·준중형·SUV도 거론

광주에 미래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의 협의가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000cc 미만 경차가 신규 차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기차, 준중형, SUV 신규 차종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 경총, 광주상의 등 지역 재계에서 일제히 현대차의 광주 투자를 반겼다.

〈관련기사 3면〉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은 이날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을 찾아 현지 실사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산단 조성 현황에 대한 광주시의 설명을 듣고

산단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주로 산단 부지 중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를 모색했다.

시는 현재 65% 수준인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공장 설립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단은 전체 면적 407만1000㎡ 규모로, 1단계 면적은 264만

4000㎡다. 시는 실제 착공 가능시기에 대한 실사단 질문에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협상단도 이날 오후 현대차 본사를 공식 방문해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위탁 기간 등을 협의했다.

실사, 협상 등을 거쳐 투자 협약이 이뤄지면 시와 현대차는 21개월의 기간동안 합작법인 구성, 완성차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2018 청소년 축제

7월 1일(일)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 특설무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밴드, 댄스, 보컬, 풍물 등 경연과 3:3 농구대회 등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 밴드 및 공연팀의 특별공연도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 및 청소년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7월 1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 특설무대
- 경연부문 : 밴드, 댄스, 보컬, 풍물, 기타 공연, 3:3 농구대회
- 참가자격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참가비 :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광주일보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 의제 조율 '박차'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의 가능성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팀이 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만나 막판 의제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2·8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 도착, 오전 10시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최섉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실무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뉴욕 고위급 회담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김영철 부위원장 접전에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그 이후 진행되는 사흘 연속 회담에선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김 최섉희' 라인인 실질적인 의제 조율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문점 실무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선(先) 반출-폐기 문제도 이날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통 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선 반출-폐기가 어렵다면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고 및 봉인 조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